



Japan Pack 2003에 다녀와서

3R·친환경 포장산업 발달

김은혜 / (사)한국포장협회 교육 담당

(사)한국포장협회가 주최한 2003 일본국제포장기계전 참관단 41명은 지난 20일 일본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하늘 위에서 보는 그룹들은 마치 빙산이 녹아 물위에 떠 있는 듯 하였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을 떠나왔는지도 잊을 정도였다.

약 2시간을 조금 넘게 지나 우리는 일본 나라타공항에 도착하게 되었다. 눈앞에 보이는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들 이 이곳이 일본이라는 것을 강하게 인식시켜주는 듯 하였다.

참관단은 (사)일본포장기술협회가 마련한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펄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포장산업의 현황”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일본은 장기 경제침체 여파로 포장산업 또한 불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최근 들어 설비투자를 늘리고 주가상승세에 영향을 받아 포장생산·출하 감소 폭이 2001년부터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일본포장산업의 원재료별 구성비는 종이·판지가 42%, 플라스틱제품 24.5%, 금속제품 19.3%로 종이·판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수량 또한 종이·판지가 58.5%로 반 이상을 차지하고, 플라스틱 18.3%, 금속 11.4% 순이었다. 플라스틱제품은 환경문제를 불러일으킨다 하여 작년에 과거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지만 점차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일본은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순환계 포장 활동 즉, 3R의 ① 폐기물의 억제 ② 재사용 ③ 재자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모든 활동에는 LCA(Life Cycle Assessment, 전 과정평가)를 통한 평가를 꾸준히 함으로써 그에 따른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은 생활쓰레기의 60%가 포장폐기물이 차지하고 있어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포장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용기포장리사이클(Recycle)법”을 제정하여 가정에서부터 재사용,



◀ (사)한국포장협회
회가 주관한 Japan
Pack 2003참관단

재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그 결과, 박스의 회수율은 100%에 달하고, PET는 올해 들어 50%, 알루미늄캔, 병 역시 80%를 크게 넘는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실행이 있으면 결과가 확실히 눈앞에 보이는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계획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실행을 하다가도 무관심 속에 묻혀져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이점에 선 일본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환경문제에 이어 일본에서 또 하나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다.

이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날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로 인해 모든 연령층 특히,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편리한 기능들의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일본의 포장산업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말로만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탓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한 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사)일본포장기술협회에서 포장산업에 있어 세계적인 과제로는 “포장의 기능과 환경에 대응한 포장의 개발이다.” 즉, 포장과 환경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날 일정으로 우리는 동경국제전시장에서 열린 “2003 일본국제포장기계전”을 관람하기 위해 전시장으로 향했다.

이번 전시회는 포장기계, 포장자재, 포장재료 가공기계, 식품가공기계, 포장유통관련기기, 환경기업체들이 모여 신제품을 전시 공개하고 산업의 합리화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 하자는 목적에서 10월 21일 ~ 25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다.

평소에 매스컴에서 접해왔던 “일본의 도시락



◀ (사)일본포장기술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참관단

문화”를 그대로 반영하듯 전시장에서 역시 도시락 용기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전날 세미나에서 일본포장의 원재료별 구성비에서 종이·판지가 42%를 차지한다는 내용에서와 같이 도시락 용기제품 역시 주된 재료가 종이로 이루어져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포장산업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인들의 아기자기 한 멋을 살려 기능과 편리함만을 중시한 포장이 아니라 하나하나 소량으로 날개 포장한 제품들은 시각적인 미와 함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미각까지 자극하고 있었다. 이렇듯 작은 제품의 포장 하나에서도 일본인들의 생활습관이나 문화가 뿔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장의 한 쪽에 자리 잡은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문구가 눈에 띄었다. 마침 어제 세미나 내용에서도 최근 일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

다고 하여 전시된 샘플을 직접 확인해 보았다.

어린이들을 겨냥한 초컬릿포장이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초컬릿포장이 몇 겹씩 겹쳐져 있어 개봉하기 불편했던 것과는 달리 양손으로 벌리기만 하면 단번에 초컬릿이 나와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어 간편함과 편리함 시간 절약의 장점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돼 있었다.

이번 전시회는 (사)일본포장기술협회에서의 세미나 주제였던 “일본포장산업의 동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고는 하나 이번 전시회에서 본 포장산업에서 만큼은 우리나라도 일본을 바짝 뒤쫓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견문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세계의 포장산업 속에서도 당당히 견줄만한 우리나라의 포장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